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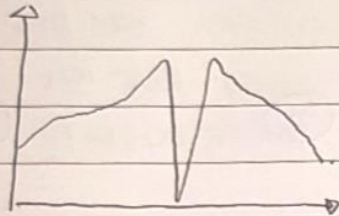
13. 태풍이 가까워질 때 → 기압 ↓ 풍속 ↑

멀어질 때 → 기압 ↑ 풍속 ↓

단, 예외 - 태풍의 눈.

• 기압은 가장 낮은 부분이나, 바람이 거의 없음.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 풍속 그래프:



← 양쪽 증/감은 똑같음.

[해설]

가. A는 낮아지다 커지므로 기압 감을 알 수 있다.

나. 풍향이 북 → 서 → 남, 즉 시계 방향으로 변했으므로, 연안 반원에 위치한다.

다. → 허네기들다 허갈린 보기

• 11일 12시에는 기압이 최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는 저기압이  
우세했을 것이다.

저기압 → 위에서 누르는 힘 작음 → 양쪽에서 공기 수렴

→ 상승 기류 이기 때문에, 하강 기류라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답 : 나

15.  $\rightarrow$  허니가들은 특경선지보다. 자르 해석에 이를 맞았습니다.

자료를 같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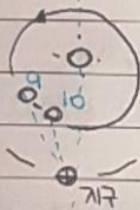
이 시지경이 '커진다'는 말은, 같은 천체가 지구와 더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지경이 가장 큰 10월 말에, 금성은 지구와 가장 가깝다,  
즉, **내합**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료를 보면, 시지경(크기는 커지는데 밝기는 줄어드는 구간이 있죠?)  
그건, 내합연가면 관측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와 빛을 가리는,  
즉 **삭**의 위치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허설]

7. 9월과 10월의 상황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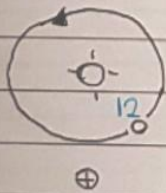


금성이 밝아진 **이각**이 9월보다 10월에 작습니다.

**이각**은, 태양과 금성의 뜨는 시간 차이를 의미하고,  
이것은 **관측 시간**을 의미합니다.

$\therefore$  9월에 금성을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8. 12월 초의 상황입니다.



금성이 **서방**으로 이미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늘게 봐도,

그믐은 **될지언정** **초승**은 불가능합니다.

9.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역행** 운동을 합니다.

이때, 금성의 **경도가 잠깐 감소**합니다!

답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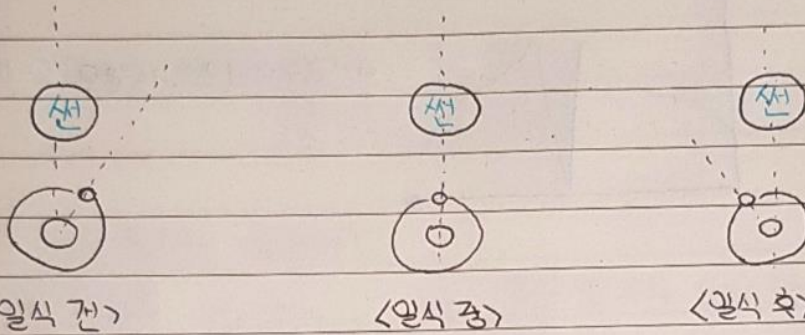
## 16. 일식에 관한 문제!

일식 -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끼어 태양을 가리는 현상.

따라서, 일식 시에 달의 위상은 무조건 삭.

### [해설]

7. 일식 시 천체간 관계를 살펴보면,



위 그림에서, 일식 전에는 달이 태양에 위치하여 태양보다 일찍 뜨고,

일식 후에는 달이 동쪽에 위치하여 태양보다 늦게 짐을 알 수 있다.

### L. → 허네기들이 햇갈린 보기

(나), 즉 12월 26일은 동짓날 주변의 날자이다.

∴ 태양은 동지점 부근에 있다.

이날 달의 위상은 삭이므로, 역시 태양 근처, 즉 동지점 부근에 위치한다.

D. 둘 다 위상이 삭 임엔 틀림 없으므로, 적위를 봅시다.

12월 22일, 즉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의 적위는 상승합니다.

달 또한 태양 부근이므로, 12월 26일보다 1월 6일의 적위, 즉 남중고도가 높겠다고 추론할 수 있어요.

+ 한 가지 더.

(가)에서 달은 태양의 위로, (나)에서 달은 태양의 아래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 남중고도가 차이가 커지겠죠!

18. 거석들은, 선지보다 가로 해석을 힘들어 했습니다.

지구 외각 요인 (달만코바지 3개) 문제입니다.

(가)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은 이번엔 쉽게 나왔지만, 어려운 때를 대비해 알아 놓으시다.

13000년에 180°씩 뒤집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

6500년이 지난다면?

답은, '한 계절씩 달린다' 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 이죠?

6500년 후,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봄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6500년 전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었겠죠?

(나) 이심률 변화.

이심률 변화는, 그때그때 자료로 파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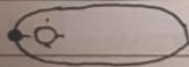
단, 개념의 답? 안가보 한계 있는데, 무조건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심률이 커지면 납작타원, 작아지면 그냥 원으로 생각하시면, 선지 판단 쉽습니다.

[해설]

ㄱ. 지금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지만, 13000년 전에 반대인 겨울이었습니다.

ㄴ. 한계가 10만년 보다 이심률이 작네요. 아까 말한대로,



<10만년 전>



<한계>

10만년 전이 더 크겠네요.

ㄷ. 2000, 52000년 전을 비교하라는 건, '세차운동 빠고 생각하라' 라는 거죠.

52000년 전의 이심률이 2000년 전보다 더 작으므로,

연교차 역시 더 작을 겁니다.

겨울이 따뜻 해지고, 여름이 추워지기 때문이죠.

19.

자료해석부터 하십시오.

(4) 표의 파장이, 왼쪽  $\rightarrow$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따라서, 왼쪽의 흡수가 갈수록 A는 자외선이고,

흡수가 안되기 시작하는 B는 가시광선, C는 적외선 영역이겠지만 하고

넘어가심 됩니다.

(나)의 망원경은 **잡동!** 가시광선식 광학 망원경입니다.

[해설]

ㄱ. 대기는 A를 많이 흡수하므로, 반대로 투과율은 B에서 높습니다.

ㄴ.  $\rightarrow$  허너기들은 이 보기를 함들이 했습니다.

가시광선식 광학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A는 대기에 흡수돼버리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므로 관측이 힘들겠죠?

ㄷ. A는 자외선  $\rightarrow$  높은 에너지 관측. 반대로 C는 적외선, 낮은 에너지

관측이므로 A 보단 C가, 낮은 온도를 관측하는 데 적당합니다.